

공 맞고 아파하는 최형우

등록 2022.04.02 16:09:59



[광주=뉴스시스] 류형근 기자 = 2일 오후 광주 북구 광주-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2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대 LG 트윈스의 개막경기, 7회말 1사 1루에서 KIA 5번타자 최형우가 몸에 공을 맞고 아파하고 있다. 2022.04.02.

hgryu77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